

김연아 키즈... '금빛 빙판' 역사 다시 쓴다

벨라 밀라노
0-11... 피겨 스케이팅 전망

3번째 올림픽 출전 차준환

부상·부츠 약재 뚫고 만점 준비
연기 완성도·예술성 톱클래스
주제곡 바꾸고 필승 심기일전

첫 도전 무서운 10대 신지아

I세계선수권 4년 연속 은메달
안정적 연기로 믿음의 호성적
체형변화 극복하고 메달 도전



한국 피겨 스케이팅은 2014 소치 동계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김연아 이후 올림픽 시상대에 오르지 못했다. 김연아의 연기를 보고 자란 일명 '김연아 키즈'들은 세계선수권대회, 그랑프리 파이널, 동계 아시안게임 등 각종 메이저 대회에서 굵직한 입상 기록을 냈지만, 유독 올림픽 메달과는 인연이 없었다. 김연아 은퇴 이후 한국 피겨가 올림픽에서 낸 최고 성적은 2022 베이징 올림픽 남자 싱글 차준환(서울시청)이 거둔 5위다. 여자 싱글에선 베이징 올림픽 유영(경희

대)이 세운 6위가 가장 높은 순위다. 한국 피겨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남북 동계 올림픽에서 12년 만의 올림픽 메달을 노린다. 피겨 대표팀은 밀라노 올림픽 개막대에 태극기를 걸 체비를 마쳤다. 중학생 시절부터 남자 싱글 간판 역할을 한 차준환은 세 번째 도전에 나선다. 그는 휘문고에 재학 중이었던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종합 15위에 오르면서 1994년 릴레함메르 대회 때 정성일이 작성한 한국 역대 올림픽 남자싱글 최고

순위(17위)를 24년 만에 뛰어넘었다. 이후 큰 폭으로 성장한 차준환은 베이징 무대에서 감동의 연기를 펼치면서 종합 5위 순위를 끌어 올렸다. 차준환은 올 시즌 발목 부상과 스케이팅 부츠 문제로 고생했으나 최근 몸 상태와 장비 문제를 수습하면서 올림픽을 착실히 준비 중이다. 경쟁자로는 남자 싱글 최강 일리아 말리니(미국)와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가기야마 유마(일본), 유럽 챔피언 아담 샐잉과(프랑스) 등이 꼽힌다. 차준환은 이들에게 기술에서 살짝 밀리지만, 연기 완성도와 경험, 예술성에선 부족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올림픽을 마지막 올림픽 무대라는 생각으로 훈련 중인 차준환은 프리 스케이팅 프로그램으로 2025-2026시즌에 펼쳤던 '달랑루즈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대신 2024-2025시즌 프로그램인 '망인을 위

한 발라드'를 쓰기로 하는 등 승부수를 띄웠다. 여자 싱글에선 신지아(세화여고)가 기대 받는다. 그녀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 은메달을 딴 한국 피겨 여자 싱글 최고 기대주다. 트리플 악셀 등 고난도 기술을 구사하지 못하지만, 안정적인 연기력과 완벽한 비점프 요소 등을 앞세워 출전하는 대회마다 좋은 성적을 거뒀다.

그는 시니어 무대에 데뷔한 2025-2026시즌 초반 체형 변화로 고생했으나 시즌 말미 경기력을 회복하면서 올림픽 메달 기대주로 다시 올라섰다. 불과 4년 전까지 러시아 선수들의 독무대였던 피겨 여자 싱글은 이제 누구나 메달에 도전할 수 있는 경쟁의 장으로 변모했다. 4회전 점프 등 초고난도 기술을 시도하는 선수가 적기에 실수하지 않는다면 메달을 노려볼 수 있다. 이번 올림픽에선 러시아 출신 개인종합 선수 아델리아 페트로시안과 2025년 세계선수권 우승자인 미국의 알리사 리우, 이번 대회를 은퇴 무대로 삼은 일본 사카모토 가오리 등이 경쟁 상대로 꼽힌다. 은퇴 갈림길에서 올림픽 출전권을 극적으로 획득한 여자 싱글 이해인(고려대)도 높은 순위를 노려볼 만하다. 전성기 때보다 체력이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지만, 그동안 세계선수권대회 등 큰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만큼 깜짝 놀랄 만한 성과를 낼 수도 있다. 남자 싱글 김현겸(고려대)과 아이스댄스 임해나-권예(경기일반) 조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한국 피겨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2018 평창 대회 이후 8년 만에 단체전인 팀 이벤트에도 출전한다. 패어 조가 없어서 상위권을 노리기 어렵지만, 개인전을 앞두고 현장 분위기를 익힐 좋은 기회다. **글:사잔-연합뉴스**

男배구 휴식기... 아시아쿼터 교체 호기

대한항공, 좌 날개 공격수 영입 추진... KB, 야콥 거취 결정 현대캐피탈, 조직력 강화... 한전·OK도 서브·리시브 보완

프로배구 2025-2026 V리그가 24일부터 올스타 휴식기에 들어가는 가운데 남자부 7개 구단이 휴식기를 대비한 전력 보강에 나선다. V리그는 닷새간의 휴식기를 거쳐 오는 29일 경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순위 경쟁을 재개한다.

올스타 휴식기 동안 전력 보강 작업에 나선 7개 구단은 대항공의 행보가 가장 눈에 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 쿼터 선수 교체를 준비 중이다. 주전 리베로로 활약해왔던 이가료혜이 대신 아웃사이드 히터 선수를

데려와 공격력을 보강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한항공은 대체 아시아 쿼터 선수를 낙점하고 국제이적동의서(ITC) 발급 등 막바지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라운드 초반까지 파죽의 10연승으로 선두를 질주하다가 토종 간판 공격수 정지석과 임재영이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후 4연패 부진을 겪는 등 공격력이 약화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지석이 발목 부상을 털고 코트에 복귀

했지만, 현대캐피탈, KB손해보험과 상위권 경쟁을 뚫고 정규리그 1위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력 강화가 필요하다. 대한항공은 4라운드까지 시즌 15승 8패(승점 45)를 기록, 2위 현대캐피탈(승점 44), 3위 KB손해보험(승점 39)에 쫓기는 신세다. 상위권 세 팀 중 KB손해보험도 아시아 쿼터 선수로 고민이 크다. KB손해보험은 주축 아웃사이드 히터로 활약했던 모하메드 야콥(등록명 야콥)이 9월 개인사를 이유로 바레인으로 떠난 지

보름 가까이 귀국하지 않고 있다. 하현용 KB손해보험 감독대행은 "올스타전(25일)까지는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면서 "나름대로 교체를 생각하고 미들 블로커와 아웃사이드 히터를 보고는 있는데 여의치는 않다"고 설명했다. 하 대행은 '교체에 더 무게를 두고 있지만, 야콥을 대체할 선수 자원이 마땅치 않아 올스타 휴식기까지 기다려본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선두 진입을 노리는 현대캐피탈과 볼배구 진출에 도전하는 4위 한국전력과 5위 OK저축은행도 전력 재정에 나선다. 현대캐피탈은 주전 세터 황승민이 부상

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기간 주축했다가 황승민 복귀 후 상승세를 타며 4라운드 4승 1패로 선전한 만큼 조직력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전력도 세터 허승우와 외국인 주포 세운 베는 에번스(등록명 베는)간 호흡이 좋아져 휴식기 기간 리시브와 서브 능력을 끌어올린다. OK저축은행 역시 경기력에 굴곡을 보였던 외국인 선수 디미타르 디미트로프(등록명 디미트로프)가 안정을 찾아 다른 약점 보완에 나선다. 신영철 OK저축은행 감독은 23일 "선수들에게 휴식을 주면서도 서브 공략과 리시브 등 약화했던 부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선수들의 수행 능력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슬개골과 고관절의 염증

in hancer Plus[™]

관절영양제의 혁명

인한서 플러스

글루코사민 + 콘드로이틴 + MSM + 브로멜라인 + 레시틴

오프라인 전용

온라인 전용

관절 관리는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